

풍계리 폭파장면 세계에 공개 핵의심 지운다

북한 '완전한 비핵화' 첫걸음

북미회담 2주 앞두고 이행

체제보장·경제지원 명분 확보

북한이 지난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오는 23~25일 함경북도 김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강도 폭파방식으로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의 첫걸음을 떼게 됐다.

핵실험장의 폐쇄는 북한의 미래핵을 제거하는 조치의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탕화하고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핵실험을 해야만 하는데 이 실험을 하는 장소가 폐쇄되면 이런 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에서는 풍계리 이외의 다른 지역에 실험장을 만들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풍계리의 경우 압반으로 이뤄져 있고 사람들의 거주지역과 떨어져 핵실험 등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췄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이 북한에서 더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실험장의 폐쇄를 통해 당분간 미래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을 잃게 되는 셈이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당 전 위원회에서 결정한 핵실험장 폐쇄를 단행한다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것을 불식하기 위해 선제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꼭 한 달 앞둔 12일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밝혔다. 또 23~25일 폐쇄 조치가 이뤄지면 정상회담을 보류 정도 앞두고 실행조치를 취하는 셈이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회담에서 체제안전보장이나 경제적 지원 등을 최대로 끌어내 보려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마이클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북한이 핵만 포기한다면 미국의 적극적인 경제지원을 보장받을 것이라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핵실험장 폐쇄조치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밝혀 미국의 성의 있는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북한은 이번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두로 약속했던 핵실험장 폐쇄의 국제사회 공개를 위한 언론인 초청 약속도 이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김 위원장의 구두 약속까지 신속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합의의 준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핵실험장 폐쇄 행사의 언론인 초청은 지난 5일 남북한 시간 통일이 이어 두 번째로 김 위원장의 구두 약속 이행사례로,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이행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한 김 위원장의 언급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언론인 초청 의사는 밝히면서 전문가 초청에 대한 입장은 보이지 않았지만, 전문가 초청은 앞으로 관련 국가들과 직접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개발면적 줄인 민간공원 2단계 본격화

광주시, 다음달 11일까지 사업 의향서 접수

광주시가 중앙·일곡·중외 등이 포함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의 제안서 접수를 지난 11일 공고했다. 제안서 제출 의향서를 오는 6월11일까지, 제안서는 9월14일까지 각각 접수하기로 했다. 개발 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1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중복 참여를 인정해 공공개발 대상을 늘리고, 각 공원별로 개발 면적에 융통성을 주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는 13일 "지난 1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제안을 접수하는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대상공원은 중앙·일곡·중외·송정·송정 10공원으로 2개 지구로 분리해 시행한다.

공원 전체 면적은 711만8839㎡, 비공원시설 즉 개발 면적은 65만9901㎡, 공원 대상지 면적은 39만8412㎡다. 나머지 606만526㎡는 원형지보 보존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개발 면적 비율은 국토교통부 지침(30%)의 3분의1에도 못미치는 9.27%다.

시는 도시공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녹지 및 공원 면적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추진

할 방침이다. 제안업체 및 기관은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제안하되 제시한 비공원 시설 및 공원시설 대상지 면적기준 범위 이내에서 작성해야 한다.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은 지나친 고층화를 억제하기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됐다.

참가자격 역시 1단계에서 드러난 민간기업의 중복 참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업체별(계열사 포함) 1개 공원만 참여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한해 중복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공고에 포함된 심사기준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단독 참여만 재구조·경영상태(15점)에서 만점을 주고, 공원조성 계획·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제안심사위원회, 시민심사단의 배점은 40점과 10점으로 각각 상향했다. 또 공고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령 또는 지침 개정 등으로 공고 내용을 수정해야 할 사유 발생되면 변경 또는 취소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해 향후 민선 7기 출범 이후 상황도 감안했다.

시는 6월11일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의향서 접수, 9월14일 제안서 제출 등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오는 9월에서 10월 사이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10년 전 핵실험장 폭파 장면

북한이 지난 2008년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중단 및 핵실험장 폐쇄를 발표한 뒤 같은 해 6월27일 북한 영변의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는 모습.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장관

오늘 5·18묘지 참배

송영무 <사진>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전 9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송 장관은 이날 참배 후 현장에서 5월 3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건의사항 청취 및 위로의 시간 등을 함께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

민주 "국제사회 신뢰높여" 한국당 "또다른 쇼" 북한, 핵탄두·ICBM도 내놓을까

북 핵실험장 폐쇄 여야 반응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23~25일 폭파 방식으로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범여권과 야당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우선, 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 때의 약속 이행을 말미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발언들도 나오던데, 풍계리 4개 강도를 모두 폭파하고 막아버린 뒤 인력을 다 철수시킨다는 것은 최소한 미래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 논평

을 내놓았지만, 자유한국당은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였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조치가 북핵폐기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냉정한 관리를 주문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북한은 2008년 이미 냉각탑 폭파소를 한번 해 세계를 기망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하겠다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문제는 기존 핵 폐기"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미국 조기반출 요구 논의 중

북한이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일부를 북미정상회담 후 수개월 내에 국외반출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북미간에 논의되는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이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위원회의 결정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ICBM 발사 중단 조치를 선언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 차후 어떤 행보를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북측의 고위급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최근 북미정상회담 의제 조율 과정에서 북한 측에 핵탄두

와 핵물질, ICBM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북한 밖으로 빼내는 조치를 요구했다. 미 행정부는 아울러 이런 요구 사항이 이행되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비핵화' 진정성을 전달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는 시급히 제거해야 할 위험 요인인 핵무기와 핵물질, ICBM 등과 관련해 북한이 과감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조기 성과'를 내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외교가에선 지난 9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기에 북미 양측이 긍정적인 분위에서 논의를 진행한 점에 비춰볼 때 북한의 반응이 부정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연합뉴스

북미회담 '남북미중 4자회담' 확대 가능

다음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회담에 참여할지를 둘러싸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싱가포르를 방문할 것이라 관측이 최근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합류해 4자 회담이 '남북미중 4자회담'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일부에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북미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다면 문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합류해 '남북미중 4자'로 연계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 여건이 다르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 주석이 싱가포르를 방문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앞날에 대해서는 장담 못하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으로 보면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중국이 같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당분간 지켜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시 주석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참여하면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였던 미국(유엔 사령부 대표), 중국, 북한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의미가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자연스럽게 합류해 '남북미중 4자'로 연계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 여건이 다르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 주석이 싱가포르를 방문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임동욱기자 tuim@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광주광역시북구공고 제2018 - 743호

중흥동 1, 2 소공원(가칭) 조성계획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중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시행자:중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관련 중흥동 1, 2 소공원(가칭) 조성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공민 명칭등)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5. 14.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개요
 - 공 민 명: 중흥동 1, 2 소공원(가칭)(2017. 10. 24. 결정고시)
 - 위 치: 북구 중흥동 361-3번지(소공원1), 중흥동 280-19번지(소공원2)
 - 면 적: 1,925.1㎡ (소공원1), 1,553.1㎡ (소공원2)
 - 조성계획 내용
 - 소공원 1 - 도로 및 광장, 파고라, 안음벽, 녹지조성 등 수목식재
 - 소공원 2 - 도로 및 광장, 파고라, 안음벽, 녹지조성 등 수목식재
2. 열람기간 및 장소: 2018년 5월 14일 ~ 2018년 5월 27일(14일간)
광주광역시북구청공민복지과(062-410-6446)
3. 의견제출 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fax)062-510-1578
4. 기타사항: 본 열람(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치동 979-1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제2018-05-01호

오치동 979-1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

오치동 979-1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및 관리차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반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조합장관 제44조에 의거 오치동 979-1번지일원 조합원 분양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 및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면적
 - ①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 오치동 979-1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②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979-1번지 일원(979-1~9)
 - ③ 시행면적: 7,241.20㎡
2. 건축심의 사항
 - ① 건축심의일: 2018년 02월 09일
 - 건축심의결과 통지일: 2018년 03월 26일
 - ② 사업시행자: 오치동 979-1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③ 시행면적: 7,241.20㎡
 - ④ 건축면적: 1,700.4798㎡(건폐율 23.4834%)
 - ⑤ 연면적: 19,693.5996㎡(용적율 215.9377%)
3.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구분	구호	세대수	정용①	주거공용②	공공③+④	기타공용⑤	계합⑥+⑦+⑧
분양	56B	1	56.3089	27.0274	83.3383	19.5495	102.8858
	56A2	20	96.7807	26.7218	83.5025	19.7133	100.2158
	56A1	56	96.7807	24.8752	81.6539	19.7133	101.3672
	84B	1	84.0253	25.6718	109.6971	20.1722	138.8893
84A	82	84.7717	25.0090	109.8677	20.4313	139.2990	
합계		160	11,406.9468	4,037.9821	15,444.8489	3,960.2977	19,405.1466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198.4500㎡			
- ⑥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관리동, 경비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

4. 분양신청자격 및 방법
 - 자격: 오치동 979-1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동소유자
 - 방법: 조합에서 지정한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사무실에 제출 또는 등기우편(분양신청기간내 발송 소인 유료) 접수
5.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① 기간: 2018년 5월 14일 ~ 2018년 6월 22일(40일간)
 - ② 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952-8번지 2층(우치로 252) 오치동 979-1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 (TEL: 062-268-2333)
6. 토지동소유자 외 관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 ① 상기 분양신청기간 내에 크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신고
 - ② 영입권 손실보상대상자 등은 필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지에 대한 조치
 - 반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의거 현금청산 함.
8. 참가 및 이후 예정일
 -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참가 및 이후예정이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별도 통보 함.

2018년 5월 14일

오치동 979-1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 용 호

다스크리
세라코리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크!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고 싶으신 분
 -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운영하지 않으신 분
 -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하고 있으나 운영하지 않으신 분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선정이 가능하신 분
 -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분
 - * 주요 관계자(가족)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동의하신 분
3. 태양광 영업인재 모집
 - * 태양광 영업인재 모집대상
 - * 태양광 영업인재 모집대상
 - * 태양광 영업인재 모집대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 모집합니다!

부	부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로지	
다	스	전략기획	전략기획	· 사업기획 및 분석 가능, 영어 능숙 이상	북부
		신사업개발	영업	· 태양광영업 경력자	
코	리	수입영업	영업	· 신규시장 관련 경력자(영업)	남부
		영업지원	영업	· 태양광영업 경력자	
세	라	영업지원	영업	· 태양광영업 경력자	남부
		영업지원	영업	· 영업 관련 경력자	

* 업무시간: 월요일 08:30~21:00, 수요일 08:30~21:00, 금요일 08:30~21:00, 토요일 08:30~21:00